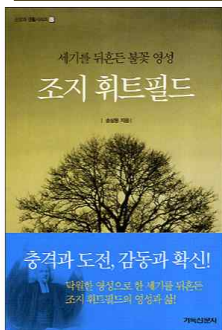




열네번째 이야기

불꽃 영성

[문화 기행①-도서]



그를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복음서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수천 명의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올 때면 스피커도 없는 시기에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

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곤 했었다. 후에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모인 필라델피아 어느 광장 맨 끝에서 한 설교자의 설교를 명료하게 들었다는 기록을 보게 되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때 벤저민 프랭클린이 들었던 설교의 설교자가 바로 조지 휘트필드였다.

휘트필드(1714~1770)의 일생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휘트필드가 3만 명 정도의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고, 많게는 8만 명의 청중에게도 맨 목소리로 야외에서 설교하였다. 멀리멀리 퍼져나간 그의 목소리만큼이나 그의 영향력 또한 영국과 미국을 흔들어 놓았다. 사도 시대 이후 가장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으로 평가받는 18세기 영국 대부흥 시대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국교도 목사였던 그는 별도의 교파를 만들지 않고 복음주의 감리교(Methodist) 운동을 주도하였다. 신대륙으로 건너가 한 사역이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의 불꽃을 일으켰다. 그는 1년에 평균 1,000회, 평생 4만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한다.

그의 설교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듣는 자마다 울며 애통해했고 그가 말씀을 선포한 지역은 영적으로 변화되었다. 그의 사역을 표현할 때는 ‘불길’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이 마른 들판에서처럼 일어났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M. 로이드 존스는 ‘조지 휘트필드의 설교를 읽을 때마다 나는 일생 동안 진정으로 설교한 적이 없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설교학자인 다간(E. Dagan)은 ‘사도시대 이후 설교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휘트필드만큼 위대한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평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40년 노샘프턴의 그의 교회에 휘트필드를 초청하면서 ‘목사님의 동역자라 불릴 자격도 없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처럼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그의 이름이 왜 다른 이들보다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연구가들은 그의 겸손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40여 년의 사역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 또한 요한 웨슬리처럼 독립교단도 만들지 않았다.

“내 이름을 모든 곳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에게서조차 잊히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라고 그는 고백했다.



그는 1735년 로마서 (8:15~16)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극적인 사랑을 체험하였다. 이는 의식 위주의 기성 국교회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이었고, 알마니안 주의를 따른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와도 대립하였다. 칼빈주의와 결을 같이하는 은혜의 복음을 따르는 휘트필드의 경이로운 사역은 기성 국교회 목사들과 신생교단 사역자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비난과 모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교파를 초월하여 복음주의적 연합을 이루고자 힘썼고 그래서 그의 집회에는 침례교회, 장로교회, 국교회 등 수많은 사람이 교파와 관계없이 모여들었다.

남들이 1년 동안 할 사역을 2주 만에 해낸다고 평가받았던 그는 하루 중 일 분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와 성경 연구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매주 40~60시간 이상 설교를 했으며, 설교 후에는 쉬지 않고 바로 기도와 성경 연구를 하였다. ‘시간을 정복한 사나이’ 류비셰프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휘트필드에 비견할 수 없다.

나는 휘트필드에 대해 읽으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염려한다. 그러나 휘트필드를 통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철저히 헌신함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목도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진다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열방의 교회가 복음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최대한을 보고 싶다면, 또 이 땅의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 BEE 식구들에게 휘트필드의 전기를 일독하길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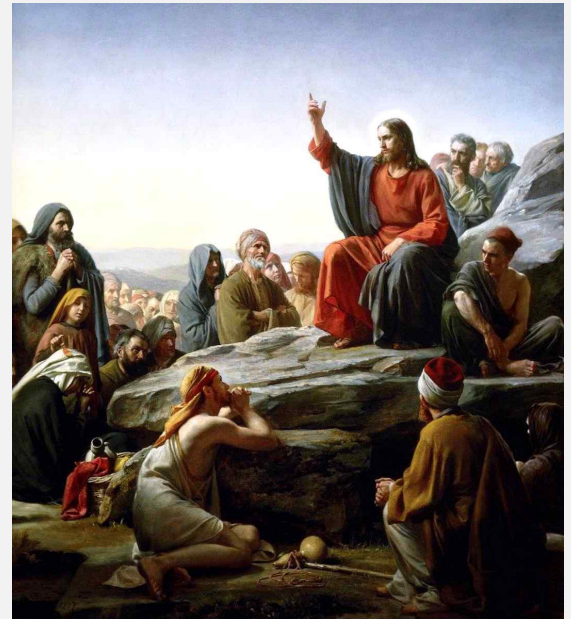
[글쓴이 장영호 집사]



2010년 BEE 세미나에 참여한 후 지금은 아프리카 기도 테이블과 성경연구원을 섬기고 있으며, 이승혜 권사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정리 김종영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칼 하인리히 블로흐(Carl Heinrich Bloch, 1834-1890), 동판 유화, 1879년, 덴마크 국립역사박물관 소장)

주님께서 군중에게 하늘나라를 비유로 가르치고 계신다. 주님의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며,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의 표정과 동작이 매우 생생하여 현실감이 넘친다. 덴마크 태생의 화가인 하인리히 블로흐는 이 작품을 비롯하여 주님의 일생을 묘사한 23개의 성화를 덴마크 왕실 경당을 위해 그렸다. 현재는 왕궁이 박물관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전시되고 있다.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130여 년 전에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가득 채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찾아온 사랑을 찾아’ 서울 도심 속으로 떠납니다. 매회마다 제한된 인원(12명)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장소 : 서울 연동교회
일정 : 6월 18일, 25일, 7월 2일 토요일 이른 아침
3. 여름방학 특강이 개설되었습니다. 아직은 라구 강습회 빼고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월	화	목	토
오전				라구3 인도자 강습회 (대면: 6/11-6/25)
				히브리서 (7/2-8/20)
오후	하나님의 성품 (7/4-8/29)	고린도전서 (6/7-7/26)	교리론 1 (6/16-8/18)	